

# “제대로 살면 죽은 다음 일은 걱정없다”

강사 : 도법 스님

일시 : 2009년 10월 22일

주제 : 여성! 부처를 말하다

장소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교육센터

주최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승만경》은 《유마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새가득도(在家得道)를 펼쳐보인 경전으로 산스크리트의 경명은 Simaladevi-simhanada-sutra이다.

《승만경》은 승만이라는 재가여성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하여 부처님 설법의 지위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대승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증명하는 경전이기에도 의미가 깊다. 승만보살은 대승(大乘), 즉 일승(一乘)을 수지하며 불설(佛說)에는 이승(二乘)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생이 번뇌에 빠져 있지만 본성으로는 여래(如來)와 마찬가지로 여래의 성품(佛性: 如來藏)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승사상을 계승하고 또한 여래장 사상을 대승의 정계(正系)로 자리잡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경전인 《승만경》을 도법 스님이 설주로 나서 강의했다.

도법 스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승만경》의 깊고 요묘한 지혜를 함께 들여보자.



도법 스님이 10월 22일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교육센터에서 승만부인이 사자후 한 《승만경》을 강의하며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핵심대화해 이야기했다.

않으셨던 것은,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 보면 완전 무방비상태로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출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출가자들의 삶이 지금처럼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방랑자나 마한가지로, 아무 보호막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출가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당시 출가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이 대부분 석가족이었습니다. 출가는 가정을 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당시 부처님의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등 그분들의 출가를 허락하면 출가해서도 가족들과 같이 사는 편이 되기 때문에 선택 허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나 내용으로 보아서 허락을 해야 하는데 신홍종교였던 데다 당시 사회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승만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이냐. 행위와 행위의 과보만 있을 뿐 행위 하게 하는 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이 정법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대승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법에 대한 신심과 원력으로 살면 대승보살이요, 정법에 대한 신념과 원력이 없으면 대승보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성(聖)의 의미는 일체 성문과 연각은 아닙니다. 성문과 연각은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과 연각은 일부분의 공덕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은갖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의 의미가 성문과 연각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진리가 아니며 또한 성문과 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승만경》에는 여래장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수행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후 중생을 위해 법을 전한다’는 것이 종교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로 오면 사회완성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래장사상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래장은 깊고 깊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본래부처론’으로 발전합니다. 요즘에 와서 대승불교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불교 당시는 바라문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힌두교입니다. 바라문의 아트만(atman)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 욕심 버려야 ‘제2의 화살’ 맞지 않는다 부처행위 하면 부처님 삶이 이루어지는 것

### # 남녀 불평등 근본적으로 없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해온지가 2000년이고, 부처님 나라를 이야기 해온 지가 26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또 2600년 동안 불국토를 이야기 해왔는데, 불국토를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어쩌세요? 불자님들. 그림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불교는 계속 혼란스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승만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입장에서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해 보면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병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불교는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은 “초기불교가 진짜다” 선(禪)하는 사람들은 “선만이 진짜다” 라고 말합니다.

병의 숫자만큼 약이 있듯이 인생 문제의 숫자만큼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하는 것만이 유일하다. 내 생각이 진짜다”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존중하고 열려있는 사고방식이 불교인의 상

식이 되고 교양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교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 집’이죠. 남녀 불평등의 문제도 그런 의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녀 불평등의 사고방식이 불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되기 이전부터 ‘본래있던 법’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내가 출현했다 출현하지 않았든지, 또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는 법’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본래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 한 ‘교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있는 법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같은 법인데, 남성에게는 적용이 되고 여성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성불자들 중에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원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또 한편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서워

요. 현실적인 불평등 구조 때문에 그러한 원을 세우지만, 그것은 피해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극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부당하고, 법의 정신에도 안 맞는 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 # 행위와 과보만 존재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과보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그 말의 뜻은 “내가 행위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의 삶이 이루어지고 부처행위를 하면 부처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후의 조종자가 있어서 내가 ‘도둑질’ 하게 하고 ‘부처님 행’ 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후의 조종자는 없습니다. 배후의 조종자가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위 하는 겁니다. 배후의 조종자를 두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 브라만에서는 아트만(atman : 만물 속에 내재하는 영묘한 힘을 배후의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 오늘을 잘 살면 내일 걱정은 없다

오늘을 제대로 살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삶을 제대로 살면, 죽은 다음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하는데 내 존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걱정하고 모래를 걱정합니다. 또 현재보다는 내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을 제대로 살면 내일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괜히 내일 일을 걱정해서 오늘을 허비합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부처님 법으로도 맞습니다.

《승만경》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변성제장’은 ‘무한히 성스러운 진리를 다루는 장’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기존한 불교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불교사상이 진짜라고 깊고 풍부하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한 불교(초기불교의 가르침) 보다 ‘여래장 사상’을 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육체가 그것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 육체를 정화시켜야만 바른 행위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atman)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본래취지가 왜곡됐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치료하려 보니 다른 처방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일승(一)사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속에서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순간 확인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욕심을 내서 꺾는 것은 제2의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지 마라는 겁니다. 감정과 욕심을 분리 시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b>불자 정보</b> 756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b>사찰 안내</b>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부지: 17,000평 ●법당 신축허가 필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사시설, 유사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b>010-3918-0333</b>	<b>포교원안내</b> ●위치: 경남 창원, 위치 최상 ●건물: 2층 중 2층 ●평수: 47평 ●방2, 공간장 등 시설안벽 ●문만 들어오시면 필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b>010-8612-2575</b>	<b>사찰 안내</b> ●위치: 경북 구미, 김천 중간 ●대지: 532평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통나무집 1채, 총 7채 ●가액: 1억 8천만원 절 사신분에게는 2천만원을 봉사하겠습니다 <b>011-540-3313</b>	<b>사찰 안내</b>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삼존불, 방3, 거실1, 창고1 ●바다 전망 ●즉시법회가능 ●가액: 총 7500만원(협의가능) <b>017-547-5008</b>	
	<b>사찰(급)안내</b> ●위치: 대구 대명동 ●대지: 106평, 법당: 40평 ●요사채(1.2층): 60평 ●포교활동 최적지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b>011-790-9171</b> <b>010-5628-8404</b>	<b>포교원안내</b> ●위치: 경남 마산시내 ●평수: 61평(2층)A급 ●합디, 戊띠, 지띠생, 비구에게 (법랍10년이상)포교원을 맡기고자 합니다. 좋은 인연되소서 ●연락 : 오후 6시 30분이후 <b>070-8861-3359</b>	<b>사찰 안내</b> ●위치: 영덕군 청수면 ●총평수: 328평 ●입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가액: 1억 5천만원 <b>010-4660-5388</b>	<b>사찰 안내</b> ●위치: 부산시 동구 초량동 ●대지 200평, ●만발 조성, ●대웅전1, 마당, 선방 숙식 가능 ●가액: 절충가능(은행통장자금) <b>010-7163-0946</b> <b>010-2827-7277</b>	<b>포교원 안내</b> ●위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시장동 ●평수 2층 65평, 방2, 공간장1, 화장실 남녀 각 1개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협의가능 ●모든 시설완비, 현재 운영중 ●스님 봉할 주지 문제 <b>011-590-2878</b>
	<b>사찰 안내</b>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중 ●방 5(큰방1, 작은방3, 공간장1)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b>011-9987-4100</b>	<b>암자 안내</b> ●위치: 창원 남지IC에서 5분거리 ●탁트인 전망, 조용하고 공기 좋은 넓은 호수에 불안개 뜨면 한쪽 그림같은 곳 ●호수에 연꽃이 피면 정말 곱같은 곳. ●암자별장이나 전원주택 생활즐길분 ●대지: 462평, 집 3동, 전밭 465평 (주인직) ●가액: 평당 29만원 <b>010-7731-3721</b>	<b>암자 터 안내</b>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삼태안 ●대지: 200평(전포환) 총 755평 ●기형태의 은물 방구조, 기초공사완료 23평, 17평 정도의 건축가능 ●수도및 서울특별시청도매물 남동사1000평 ●급히 집 지으실 분만 연락 ●삼태안 천년동굴에서 흐르는 물 단독사용 ●설계 또는 명의 변경가능, 주변 혐오시설 없음 ●집 양도가 6500만원 <b>010-6460-1316</b>	<b>포교원안내</b> ●위치: 서울 관악구 은천동 ●평수: 3층에 3층 50평(옥상사용)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싸게드릴 <b>010-3550-1180</b>	<b>포교원안내</b> ●위치: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실은동장 후문 입구 ●평수: 40평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최신시설 <b>011-857-3775</b> <b>031)755-3775</b>

## 사찰 대출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꺼기가 일체 없습니다.

- 대출지역 : 전국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 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동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성민  
016-9314-2522

죽도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